

Protecting Our Planet with new technology

KC NEWSLETTER

Issue 62 • Oct. 2014

KC 환경관계사 체육대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어울렸던 잔치

KC GLASS 소방훈련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제일

천안서북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 실시
악천후 속에서 빗난
안전 훈련 현장

남아공 출장기

MINI EPC

우리의 중요 경영계획

KC 코트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러 건의
바이오매스발전플랜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KC WORKS TOGETHER WITH DETERMINED, CREATIVE INDIVIDUALS



중기경영계획

중요 전략으로 설정한

MINI EPC

관련 프로젝트의 요지 남아공



//

2014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Busby Renewables LTD와 계약 체결

남아공을 다녀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KC코트렐에게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2014년 9월 14일에서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Mini EPC 사업과 관련하여 서동영 부사장, 박기서 부사장, 김성연 상무, 백동호 선임이 출장을 다녀왔다. 5-3 중기경영계획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설정한 Mini EPC 와 관련하여 KC코트렐은 지난 2014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Busby Renewables LTD와 바이오매스발전 플랜트(5MW) 건설 EPC 계약(계약금액 163억원)을 체결하였고, 8월 18일 다국적 제지회사인 Sappi와 함께 25MW 바이오매스발전 플랜트 프로젝트를 REIPPP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DOE(남아공 에너지부)에 제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응찰한 Ngodwana Energy LTD는 Sappi와 KC Africa, Fusion Energy 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한 회사이며, REIPPP에 등록이 될 경우 KC코트렐이 Main EPC Contractor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

이다. 9월 15일 Sappi 본사를 방문하여 Sappi의 주요 경영진(CEO, CFO, 전략/사업개발 Director) 및 Fusion Global의 파트너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회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Ngodwana 프로젝트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현지에서 건설을 주로 담당하게 될 협력사인 ELB의 CEO 등을 면담하면서 기술적 부문에 대한 양 사간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9월 16일에는 발전플랜트를 건설하게 될 Ngodwana 에 소재한 Sappi 공장의 방문하여 건설 Site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반과 입지 여건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오후에는 Busby Renewable LTD의 Sawmill 공장을 방문하여 5MW 바이오매스발전플랜트를 설치할 현장을 점검하고, Sawmill의 소유주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들 외에도 KC코트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여러 건의 바이오매스발전플랜

트 EPC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조만간 그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



KC 글라스 합동소방훈련

KC글라스는 지난 9월 24일 천안서북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오까지만 해도 제16호 태풍 '풍왕'의 영향으로 호우와 강한 바람이 동반되어 실외 훈련 실시 여부가 불투명했었는데, 소방훈련 직전에 다행히 비가 그치어 예정했던 대로 소방훈련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날 훈련은 지정된 화재발생 시나리오에 맞추어서 1. 근무자에 의한 최초 화재 발견 2. 안전담당자에게로의 화재상황 보고 3. 안전 담당자의 초동 대응 지시 4. 소화기 조달 및 초기 진화 시도 5. 소화전 방수구 밸브 연결 및 분사 6. 관할 소방대원 도착 및 소방시설을 이용한 화재 진압 7. 주요 물품 반출 및 대피 8. 응급환자 발생 상황 조치 및 환자 이송 9. 사후복구 및 잔해 정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가상의 화재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C글라스 임직원들은 자위소방대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따라 엄숙하고 진중한 눈빛과 신속한 움직임으로 각 상황에 맞는 조치를 능숙하게 잘 해내었다.

훈련 중 바람의 영향으로 분사되는 물줄기를 통제하기 어려워, 근무복이 물에 젖기도 하고 분출 상자가 바람에 날리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안전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임하여 남은 훈련간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이날 비록 비는 그쳤지만, 강풍이 부는 곳은 날씨 속에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KC글라스 임직원과 천안서북소방대원들의 노력을 보며 신속한 화재 대응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러한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 및 재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화재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예방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길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악천후 속에서도

실전을 방불케하는

진지한 자세로

소중한 시간을 만들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훈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습만이 재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KC글라스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다

TWO 2010 함께하자 달성하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달려가는 TWO2010

더 큰 도약을 위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노력들



7 월1일 제주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10월의 첫 날 전주 KC에코에너지 회의실에서 TWO2010 최종보고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태영 사장님을 비롯한 각 회사의 대표들이 모두 모인 이날은 도출된 목표 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목표설정 단계 동안 진단과 분석을 통해 KC환경서비스는 6억7천5백만원, KC한미산업 5억4천3백만원, KC에코에너지는 5억2천만원의 목표를 설정 하였고, 문제해결 단계에서 목표를 100% 달성하는 97건의 아이디어와 전략이 도출되었다. 정량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가절감 방안부터 안전환경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방안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회사의 전 임직원이 참여한 제안제도와 아이디어워크숍 등을 통해 얻은 결과였다. 모두가 반신반의하며 스스로의 가능성과 능력에 물음표를 던질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결과를 받아들였고 자신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앞서 이미 프로젝트 수행 기간 동안에도 눈에 띄만한 협업의 성과와 화합의 결과물들이 도출된 것이 고무적이다. KC환경서비스의 고열량 폐기물을 저열량 폐기물 위주의

소각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KC에코에너지로 전달 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사례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함께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었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이제 내년 6월까지의 각 회사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의 마무리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그 결과와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TOP We One TOP
로 하나 되자 하나되
어 TOP하자 TOP를 위
한 하나 되자 하나되어
TOP가 되자 TOP 성과
개선 및 하나되어 매출
20% 향상, 원가 10%
절감



KC 환경관계사 즐거운 체육대회

함께 뛰며, 함께 땀 흘리며,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

체육대회를 통해
관계사 임직원들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제 5회 환경관계사 체육대회가 2015년 9월 26일 금요일 파란 가을하늘 아래 전남 구례군 공설운동장에서 펼쳐졌다. 이번에는 작년에 처녀 출전하였던 KC글라스가 애석하게도 공장정비 관계로 참가하지 못하여, 총6개 회사가 참가하였고, KC한미산업과 KC환경개발이 한 팀, KC에코에너지와 KC환경건설이 한 팀, KC환경서비스와 NWL퍼시픽이 각각 한 팀으로 나뉘어 총 4개팀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종목별 시상인 아닌 종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종목별 점수를 합산해 팀별 순위를 결정하였다. 이렇게 규칙을 바꾸니 어느 한 종목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졌고, 팀마다 화이팅이 넘쳤다. 특히 KC그린홀딩스 기획팀에서 ES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백동호 선임과 성장제 사원도 함께 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오전에는 족구와 발야구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피구를 하였다. 오후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

가 진행되었고, 릴레이 계주1(발목어달리기), 계주2가 진행되었다. 족구는 신흥세력이 주축이 된 KC한미산업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발야구는 KC환경서비스가 우승하였다. 피구는 공격에서 노련미를 선보인 KC에코에너지·KC환경개발팀이 우승하였다. 그리고 축구는 신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NWL퍼시픽이 승부차기 끝에 4년연속 우승자의 기쁨을 맛보았다. 협업과 단결력이 중요한 계주1 발목어달리기에서도 KC에코



에너지·KC환경개발팀이 호흡을 가장 잘 맞추어 우승하였고, 계주2 이어달리기에서는 KC한미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치열한 접전 끝에 KC환경서비스가 종합 우승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땀 흘리며 함께 어울렸던 운동경기가 끝난 후, 땀을 식히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OX퀴즈가 진행되었다. 한 문제 한 문제에 참가자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각자

의 운과 실력을 모두 뽐내며 즐겁게 마무리하였다. 모두가 어울려 함께 뛰었던 시간을 끝내고 쌀 나눠주기가 진행되었다.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다 더 많은 쌀을 나눌 수 있어 황금빛 들녘을 바라보며 추수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에 각 회사의 임직원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낸 체육대회는 따뜻한 쌀 나눠주기를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느니 도와준 날씨와 누구 한 명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체육대회에 감사하며, 내년 KC 환경관계사 체육대회에는 또 어떤 즐거운 일들이 있을지 기대해 본다.

해외법인 TS교육

해외법인지원팀 주관 교육 및 관계사 견학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동안 해외법인지원팀 주관, 해외법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TS교육 및 관계사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 법인은 KCVN과 LCIN이었으며, KCVN에서는 Lai Van Duong, Le Ham Nghi, Dang Thanh Huyen, Bui Huu Thai 총 4명이 참석하였으며, LCIN에서는 Saikat Maiti, Indrajit Paul, Prasanta Kumar Das 총 3명이 참석하였다. 해외법인들의 Spare parts 판매 개시 및 TS 사업이 점차 본격화됨에 따라, 각 법인의 해당 직원들이 TS사업의 개념을 이해하고, 업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었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TS교육이 진행되었으며, TS사업부의 박일봉 선임이 TS사업의 업무분야, 발전과정, 업무절차와 TS사업분야에 대해 상세히 강의하였다. 둘째날은 TS현장인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

합 발전소로 견학을 다녀왔다. 셋째날부터 마지막날까지는 KCMS와 KC글라스, KC환경개발, 클래스트라하우저만, KC에어필터텍, 놀텍코리아 등 국내 관계사들을 돌아보고, KC그린홀딩스의 사업분야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짧은시간이었지만, 베트남과 인도법인의 직원들이 본사에 방문하여 본사 직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것보다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향후 베트남시장과 인도시장에서 KC의 해외법인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이번 교육이 작지만 단단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TF 워크숍

리스크 관리와

긴밀한 협업을 위하여

//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KC의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춰 나갈지 기대해 본다.

전사적 프로세스의 재정립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업무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WORKSHOP이 2014년 9월 27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WORKSHOP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TFT 주관으로 각 사업부 팀장 및 PM이 참석하여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실행예산 관리규정 개정을 협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실무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사업부별 또는 팀별 협업이 필요한 업무프로세스나 ISSUE 사항에 대해 서로 마음을 열고 열띤 논의를 하였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TFT팀장 임창호 상무는 논의 된 사항들을 향후 업무 수행 시 리스크 관리와 긴밀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WORKSHOP을 마무리했다.



KC NEWSLETTER

A GLOBAL LEADER IN GREEN BUSINESS
